

《中朝學士書翰錄》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姜贊洙**

<목 차>

1. 머리말
2. 《中朝學士書翰錄》의 서지 사항
3. 주요 수록 내용
4. 尺牘교류 상의 특징적 면모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고려대도서관 漢籍室에 소장되어 있는 《中朝學士書翰錄》¹⁾에서 발견된 서지 사항을 고찰하고, 수록된 15편의 書箋 및 詩箋을 脫草 翻譯하면서 파악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朝鮮과 淸나라 문인 간의 교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연행 관련 문헌에 학계의 큰 관심이 모아짐에 따라 국내외 자료에 대한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中朝學士書翰錄》의 탈초와 번역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복단대학 문사연구원 華蕾 선생과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차영익, 김희경 선생께 감사드립니다.

** 圓光大學校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한중법률연구소 연구위원.

1) 청구기호: [화산-貴-661A]

고려대학교도서관 漢籍室에는 유사한 표제명의 책독자료 《中朝學士書翰》(청구번호: [화산-귀-661])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淸朝 乾隆 연간에 중국 浙江省 杭州지역 문인이었던 嚴誠·潘庭筠·陸飛 등 三學士가 조선의 金在行에게 보낸 서신 17편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본사와 구분된다.

발굴 작업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판본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筆寫本과 詩文 墨跡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17·8세기 북학파들의 연행에서 조선 후기 학자들의 연행까지 그 연구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中朝學士書翰錄》은 19세기 후반 淸나라 문인들이 朝鮮 後期の 인물인 邵亭 金永爵과 그의 아들인 道園 金弘集에게 보내온 친필 書翰들을 모아놓은 尺牘자료이다. 김영작은 1858년 동지부사 자격으로 북경에 건너가 많은 청나라 문인들과 교유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다. 그의 연행 문헌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내 학계에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근래에 일본 天理大에 소장되어 있던 필사본 《燕臺瓊瓜錄》²⁾이 발견되면서 김명호의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³⁾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그 후 천금매는 조선 후기 燕行史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⁴⁾에서 김영작의 교유 관계의 일단을 정리한 바 있다.

이 《中朝學士書翰錄》은 歷史文物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燕臺瓊瓜錄》이 김영작의 死後에 필사된 2次 整理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校勘을 통해 字句의 刪增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1次 문헌자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고려대 한적실에 소장되어 있는 이 서한집은 해당 소장기관에서 정리한 간략 해제조차 없고, 문헌학적으로 어떤 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고는 《中朝學士書翰錄》에 대한 문헌학 연구의 첫 단계로서 우선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김영작과 청나라 문인들 간의 척독 교류정황을 통해 당시 문화교류의 특징적 면모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는 사십여 장의 花箋과 畫箋 위에 벼을 향한 그리움과 하소연을 담아 보낸 서신들이 백여 년 세월 동안 綢緞으로 장식된 서한

2) 일본 天理大學도서관 소장본(청구번호: [九二一.三一五]).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文獻研究》(集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203면 참조.

3)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19집, 2008, 989-1023면 참조.

4) 천금매,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79-192면 참조.

집 속에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선행 연구에서 미처 언급되지 않은 내용과 오류사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中朝學士書翰錄》의 서지 사항

2.1 인물 小傳

《中朝學士書翰錄》은 19세기 후반 淸나라 문인들이 朝鮮 後期の 인물인 邵亭 金永爵과 그의 아들인 道園 金弘集에게 보내온 친필 서신들을 모아놓은 尺牘자료이다.⁵⁾

金永爵(1802-1868)의 本貫은 慶州이고, 字는 德叟, 號는 邵亭이다. 1838년(憲宗4年)에 蔭補로 靖陵參奉이 되었고, 1843년 식년문과에 甲科 探花로 급제하여, 吏曹·戶曹·禮曹·兵曹參判 및 漢城府左尹·漢城府右尹·司憲府大司憲·弘文館提學·牧使 등을 역임한 뒤 高宗朝 초에는 開城府留守를 지냈다. 김영작은 1858년(哲宗9年) 10월 26일에 冬至副使자격으로 연행하여 程恭壽(1804-?), 葉名灃(1811-1859), 吳昆田(1808-1882), 張丙炎(1826-1905) 등 당시 淸나라의 名儒들과 교류하고, 그 이듬해 3월 20일에 돌아왔다. 그는 귀국 후에도 연행 당시 만났던 淸나라 문사들과 부단히 서신을 주고받으며 시문을 비롯한 학술교류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의 저서로는 《邵亭稿》, 《淸廟儀禮》 등이 전한다.

金弘集(1842-1896)은 金永爵의 아들로서 初名은 宏集이고, 字는 敬能이며, 號는 道園 또는 以政學齋이다. 1867년(高宗4年) 慶科庭試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1880년에는 修信使로 임명되어 일본에 건너가 黃遵憲의 《朝鮮策略》, 鄭

5) 김영작과 김홍집에 대한 정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의 검색자료 및 관련 연구논문을 이용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觀應의 《易言》을 가지고 돌아와 당시 개화정책 채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壬午軍亂을 수습하기 위해 조정에서 일본·청나라와 濟物浦條約을 체결할 때에는 奎權副官으로 임명되어 협상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의 수습을 위해 總理交涉通商事務에 임명되었고, 그해 7월 軍國機務處가 신설되자 領議政 겸 軍國機務處總裁官에 임명되어 내정 개혁을 추진했다. 12월 軍國機務處가 해체될 때까지 總理大臣으로 제1차 甲午改革을 주도했고, 이후 內務大臣 朴泳孝와 연립내각을 수립하고 <洪範十四條>를 발표하며 제2차 개혁을 주도했다. 1895년에 역모사건으로 박영효가 일본에 망명하자 친미파·친러파 등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고 제3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다. 그의 저서로는 《以政學齋日錄》, 《修信使日記》, 《金總理遺稿》 등이 전한다.

위의 두 父子에게 서신을 보낸 청나라 관료들과 문인들에 대해 필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⁶⁾

程恭壽⁷⁾의 字는 容伯, 晩年の 號는 人海, 室名은 坐春風館이며 浙江 錢塘(지금의 杭州) 사람이다. 1839년(道光 19年)에 舉人이 되었고, 이후 光祿寺少卿에 올랐다. 그는 顏眞卿과 柳公權의 서체에 능했으며, 당나라 서예가 李邕과 북송 서예가 米芾의 풍격을 갖추었다는 고평을 받았다. 그의 저서로는 《坐春風館筆記》가 전한다.

陳翰(생졸년 미상)의 字는 少言 또는 少巖이고, 李文源의 친척이다. 1860년 가을에 종9품 관직을 얻어 陝西로 부임했다.

李銜(생졸년 미상)⁸⁾의 字는 子廉이다.

翁學涵(생졸년 미상)의 字는 蕙舫이다. 그의 저서로는 1853년(咸豐 3年) 翁學濬과 함께 편찬한 《餘姚東門翁氏家乘》이 전한다.

6) 청나라 문인들에 대한 정보는 《皇清書史》,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中國美術家人名辭典》 및 관련 연구서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7) 《皇清書史》 卷18에는 “程恭壽, 字容伯, 別號人海隱君, 錢塘人. 道光十九年, 舉人, 官光祿寺少卿. 書法在南宮·北海之間, 都中盛稱之.【《杭郡詩三輯》】”라고 적고 있다.

8) 李銜은 이백형의 중제자로, 후전(관직 제수 후보)으로 선발되었다.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19집, 2008, 1007면 참조.)

張丙炎(1826-1905)⁹⁾의 字는 午橋, 號는 藥農 또는 榕園이다. 江蘇省 儀徵 사람이다. 1859년(咸豐 9年) 進士로 翰林院 編修를 거쳐 廣州 廉州府를 다스렸고, 이어 道員과 鹽運使의 관직을 겸했다. 이후 모친의 우환으로 귀향했다가 이십여 년 간 산천을 노닐며 지냈다. 박식하고 옛 것을 좋아하였으며, 일찍이 서적 수천 권을 사들여 집에 소장하고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살펴보기를 즐겨 하였다. 또한 시를 읊는 것을 좋아하였고, 만년에는 篆書에도 능했다고 한다. 1904년(光緒 30年)에 侍讀學士에 올랐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저서로는 《冰甌館詞》, 《榕園叢書》 등이 전한다.

趙廷璜(1859-?)의 字는 仲漁이고, 號는 二山, 別號는 慕青山孩이다. 貴州 遵義縣 사람이다. 그는 金永爵과 친분이 두터웠던 趙光(1797-1865)의 아들이다. 金石과 篆書·隸書 및 詩文에 두루 능했다. 農民起義로 인해 鄉試가 취소되자 四川으로 건너가 여러 司道 衙署에서 막부로 종사했다. 莫庭芝(1817-1890)에게 性理學을 익혔고, 布政臨으로부터 청말 서예가이자 書學이론의 대가였던 包世臣(1775-1855)의 書法을 배웠다. 이후 黔川軍을 제수 받고 귀주 땅으로 건너가 군공을 세워 知縣과 同知의 관직에 천거되었다가, 四川 大寧, 富順 등지에서 知縣의 관직에 올랐다. 저서로는 《慕耕草堂集》, 《新寧論篆詩九章》 등이 전한다.

李文源(생존년 미상)은 金永爵과 친분이 두터웠던 夢韶 李伯衡의 아들로 號는 心傳이다. 戶部郎中, 戶部觀察 등의 벼슬을 지냈다.

2.2 서지 사항

《中朝學士書翰錄》은 현재 고려대 한적실에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본 서한집의 크기는 높이 29.1cm × 폭 21.0cm이다. 화려한 꽃무늬 바탕의 짙은

www.kci.go.kr

9) 《皇清書史》卷14에는 “張丙炎, 字午橋, 號竹山, 安保子. 咸豐九年, 進士, 官廉州知府, 工篆籀. 【《木葉療法書記》】”

玉色 綢緞으로 감싼 표지 위에 대자로 ‘中朝學士書翰錄’이라고 표제하였고, 그 아래에는 소자로 ‘邵亭道園兩先生往復書 高宗二十九年壬辰(1892)’이라고 적어 본 서한집이 金永爵과 金弘集이 받은 서신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裝幀시기가 1892년임을 밝히고 있다.

각 서신들은 발신자 별로 배접되어 摺帖의 형태로 엮어져 있는데, 제7신에 套格된 白紙가 사용한 것 외에는 대부분 正文 箋紙店에서 구입한 花箋 또는 畫箋이 사용되었다.¹⁰⁾ 예를 들면, 제1신은 紅黃白三色을 바탕색으로 하는 研光箋¹¹⁾이



書影1. 《中朝學士書翰錄》의 封面

사용되었다. 각 箋紙는 모두 八行으로, 邊欄에 格子 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紅藍의 두 색으로 套印되어 있으며, 좌측 하단에는 ‘飛白齋’ 3자가 인쇄되어 있다. 제2신은 八行으로 回字形 테두리에 소라[螺] 문양과 함께 左下角에 ‘螺箋虛白齋仿古’¹²⁾라는 花邊圖案的 명칭이 인쇄되어 있다. 제3신에서 제7신까지는 각기 서로 다른 식물들이 담긴 花盆과 花瓶 도안과 ‘綉雲製’의 세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제8신은 八行으로, 연꽃 문양의 回字形 테두리 左下角에 ‘松竹齋 薛濤箋’¹³⁾ 6자가 인쇄되어 있다. 제10신은 가운데에 古琴의 앞뒤 문양이

10) 중국 箋紙 전문가인 梁穎은 그의 저서 《說箋》[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2, 17면 참조]에서 彩箋을 크게 色箋, 花箋, 畫箋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花箋은 “염색을 통해 무늬를 만들거나 무늬 또는 도안을 각인한 편지지(通過染色形成花紋, 及刻印有花紋、圖案的箋紙).”이고, 畫箋은 “그림을 각인한 편지지(刻印有圖畫的箋紙).”라고 설명하였다.

11) 研光箋(혹은 研花紙)는 조판인쇄물의 일종으로서, 종이 표면에 인쇄된 山水, 花鳥, 魚虫, 龍鳳, 雲紋, 水紋, 人物, 文字 등의 그림과 도안에 광택을 띠도록 특수 제작한 편지지를 가리킨다. (《說箋》, 55면 참조)

12) ‘虛白齋’는 북경 유리창 지역의 製箋店으로, 翁方綱, 林則徐, 李漁 등 청나라 문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李維基의 <典雅清俊話素箋>[《中國拍賣》 5월호, 2003, 35면]과 梁穎의 《說箋》[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2, 88-91면] 참조.

13) ‘松竹齋’는 浙江人 張氏가 1672年(康熙 11年) 북경 유리창에 세운 紙店으로 추정된다. ‘薛

인쇄되어 있고, 左下角에는 “秦陳章神暉琴式”¹⁴⁾이라는 圖案 명칭이 인쇄되어 있다. 특히 제12신은 六行으로, 回字形 테두리에 紅綠 두 가지 색으로 푸른 가지와 벚꽃 문형을 套印되어 있어 매우 화려한데, 좌측 테두리 상단에는 “縹緲千萬語 宛轉十三行”의 10字가 인쇄되어 편지글의 운치를 한층 더 자아내고 있다.

본 서한집의 제1신에서 제11신, 제13신에서 제15신까지는 金永爵이 연행을 다녀온 1859년부터 1867년 사이에 작성되었고, 제12신은 金永爵 死後인 1892년 음력 9월 8일에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제12신은 작성일자를 명기하지 않고 있고, 그 내용도 벗의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어서 작성시기가 未詳이다.

發信者を 살펴보면 程恭壽(書箋 2편), 陳翰(詩箋 2편), 李銜(詩箋 2편, 書箋 1편), 翁學涵(書箋 2편), 張丙炎(書箋 2편), 趙廷璜(書箋 1편), 李文源(書箋 3편) 등 7인이다. 受信者를 살펴보면 金永爵이 받은 서신이 14편이고, 金弘集이 받은 서신이 1편이다. 金永爵이 받은 詩箋 중에는 1858년부터 1859년까지의 燕行기간 중에 交유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七言律詩 4首와 金弘集이 받은 七言絕句 4首가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본 서한집을 탈초하는 과정에서 편지글이 錯簡된 채 장정된 두 곳을 발견하였다.¹⁵⁾ 우선 第25葉 뒤쪽의 “道園樞密大人執事”로 시작하는 제12신을 그 전후문맥에 맞게 차례로 재배열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第25葉:

道園樞密大人執事

貴國使來京, 奉到惠寄尊甫侍郎公詩集, 並大著墓表, 籍悉執事秉鈞贊化, 動望崇隆.

○ 第26葉:

濤箋은 본래 唐나라 때 제작되었던 箋紙로서 浣花箋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본떠 만든 크기가 작고 붉은색을 띠는 詩箋을 가리킨다.

14) 秦나라 陳章(神暉)의 琴式 문형을 새겨 넣었음을 가리킨다.

15) 천금매가 탈초한 내용 중에도 이와 같은 錯簡으로 인한 오류가 보인다.(<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191면 참조.)

於綜理幾要之餘，誦述先芬，軫懷故闔舊，不遺在遠，風義獨高，口誦心維，莫名欽跂。

曩在咸豐中，侍郎公使節入燕，與先公恪

○ 第27葉：

訂文字之好，其時廷璜方在襁褓，不數年而銜恤興悲，伶仃搘柱，勉自存立，猥承餘蔭，觀政秋曹，檢拾楹書，中有侍郎公贈詩二律·手札數通。

○ 第30葉：

當卽付裝爲卷，而深以先文恪報章久佚，戚戚於心，今侍郎公集中幸獲附載，得以鈔補先集，百朋之錫，何以喻之！自愧庸愚，未嫻吟詠，而俯仰今昔，抒循陳之，哀慕

○ 第31葉：

景投，紵之前徽，亦有不能已於言者，謹賦七絕四章，另牋呈教，倘得附侍郎公集後藉傳姓名，感且不朽矣，茲於貴國使之歸也，附上先文恪公年譜，並敝族人<居

○ 第32葉：

易軒遺稿>·<向湖村舍詩集>，仰祈鑒正，時惠教言焉，肅修蕪簡，祇敬鈞祺，臨池溯洄，伏維鑑照。

昆明 趙廷璜 頓首

또한 제12신의 別紙에 적힌 七言絶句 4首 가운데에도 그 장정 순서가 뒤섞인 부분이 보인다. 첫 번째 絶句 “情眞詞雅意纏綿，中有先人贈答篇。無福從容侍文謙，回頭剛是我生年。”¹⁶⁾와 두 번째 絶句 “繞壁彷徨寄慨深，玉河風雪發悲吟。卽今時務尤難說，察落荊高劍筑心。”¹⁷⁾가 서로 앞뒤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심지어 이 두 편이 제12신의 第27葉과 第28葉 사이에 襟接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살펴보아야 한다.

16) 본 서한집의 第29葉에 배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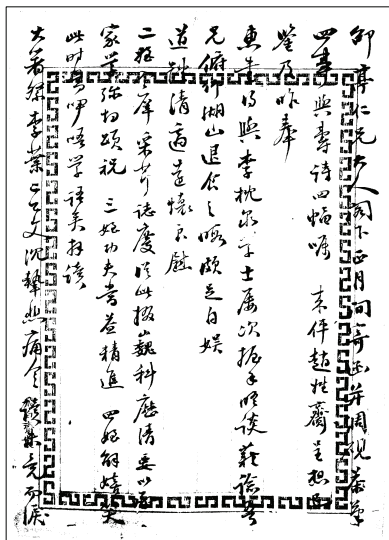
17) 본 서한집의 第28葉에 배접되어 있다.

2.3 親筆 墨迹으로서의 문헌가치

(1) 서간문체의 예술미

《中朝學士書翰錄》은 대부분 매우 뛰어난 書簡體 붓글씨로 씌어 있는데, 비록 전문적인 서예작품은 아니지만 대부분 글씨에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의 글씨답게 유려하고, 이 글씨들이 고상한 箋紙의 문양과 한데 어우러져 문인尺牘으로서의 품격이 더욱 물씬 풍긴다.

특히 程恭壽¹⁸⁾ “글씨가 남궁과 북해 두 사람의 경지에 이르렀기에, 그의 명성이 도성에 자자했다.(書法在南宮·北海之間, 都中盛稱之.)”라고 평가될 만큼 그의 서예는 당대에 이름난 서예가였는데, 《中朝學士書翰錄》에 수록된 제1신은 바로 親筆 墨迹으로서 그의 글씨를 감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書影2. 《中朝學士書翰錄》의 第1信 第1葉

(2) 《中朝學士書翰錄》所載 印章

《中朝學士書翰錄》에는 發信者의 朱印 9枚가 찍혀 있는데, 이를 識字된 내용과 함께 순서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www.kci.go.kr

18) 《皇清書史》 卷18에는 “書法在南宮·北海之間, 都中盛稱之.【《杭郡詩三輯》】”라고 적고 있다.



제1신:
人海小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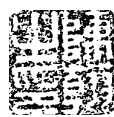
제1신:
恭壽



제1신:
程容伯



제1신:
甲子生



제3신:
翰之印



제3신:
少言



제9신:
涵私印



제10신:
丙炎言事



제10신:
午橋

이 청조 문사들은 詩文을 잘 짓는 清朝 末期의 걸출한 문장가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붓글씨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서예가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인장들은 中國美術史 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제1신에 찍혀있는 인장들을 검토해 보면, 程恭壽가 ‘人海’, ‘人海隱居’ 이외에도 ‘人海小隱’이라는 별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안에 새겨진 ‘甲子生’ 3자를 干支에 의거하여 程恭壽의 출생시기가 1804년(嘉慶9년)에 해당됨을 추정할 수 있겠다.

3. 주요 수록 내용

金永爵은 1858년 10월부터 1859년 3월까지 冬至副使로 燕京에 가서 많은 清朝 학자 문인들과 교류하였고, 귀국 후에도 그들과 지속적으로 書信 왕래를 해왔다. 본서에 수록된 서신들은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金永爵이 받은 것이며, 그의 아들인 金弘集이 받은 서신 1편은 金永爵과 친밀히 교류했던 趙光의 아들 趙廷璜이 보내온 것이다.

《中朝學士書翰錄》에 수록된 15편의 서신을 발신인, 수신인, 작성 시기 및 주요 내용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순서	발신인	수신인	작성 시기	주요 내용
1信	程恭壽	金永爵	1860.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월에 보내준 편지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명주·벼루·차·붓 네 가지 물건과 壽詩 네 폭을 보냄. - 김영작이 보내온 '李公과 葉公을 위한 祭文 (<祭李雨帆河督文>과 <祭葉潤臣觀察名禮文>)'과 '吳稼軒에게 화답한 두 편의 문장'에 대한 소감을 적음. - 김영작과 교류했던 吳稼軒·張午橋·楊汀鷺·陳少言·李文源·蕙舫·蓉翁尙書·鶴僑·吳擷衡 등의 근황을 소개함. - 전란으로 인해 혼란한 杭州의 상황을 전함. - 1860년에 연행한 조선 사신 任荷漪·李枕泉과 창화했음. - 牙尺, 墨, 洋箋, 詩牋 등을 보냄.
2信	程恭壽	金永爵	1860.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번에 보낸 서신들의 행방과 수신 여부를 물음. - 5월에 회답을 맞는 김영작의 부인을 위해서 3수와 書屏 4폭을 보냄. - 청나라의 불안한 시국 상황을 전함. - 둘째 아들과 張祥河의 딸이 결혼함. - 김영작이 보내준 韋昭 주석의 《國語》의 교감상태가 뛰어나며, 宋代 판본을 複印한 귀중서일 것이라고 함. - 종이, 빛, 부채를 선물해 준 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답례로 四川 嘉定綱, 雲南 廣硯, 杭州 龍井茶, 湖筆 등을 보냄. - 琉璃廠에서 파는 옛 사람의 문구를 새겨 넣은 벼루들 가운데에는 모조품이 많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구매하여 보내겠음. - 吳擷衡·鶴僑·潤臣 등의 근황을 전함.
3信	陳翰 (少言)	金永爵	1859,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별의 마음을 노래한 <再疊前韻兼以送別> 1首.
4信	陳翰 (少言)	金永爵	18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작과 교류했던 일들을 술회하며, 그의 文才와 공적을 칭송한 <奉和原韻> 1首.

5信	李銜 (子廉)	金永爵	1859, 정월	- 고향가족과의 연락 부재에 대한 근심과 새해를 맞아 고향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 감을 읊은 <奉覆再疊前韻用申歎仄> 1首.
6信	李銜 (子廉)	金永爵	1859, 봄	- 보내 온 시문과 일전에 받은 환약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贈別詩 <奉和原韻誌謝兼以贈別> 1首.
7信	李銜 (子廉) 陳翰 공동	金永爵	1859, 봄	- 자신의 시를 호평해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안부.
8信	翁學涵	金永爵	1866.3.20	- 김영작이 높은 관직에 등용됨을 축하함. - 朱蘭·和圃·鶴橋·寶佩衛 등의 근황을 전함. -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가족들의 고생스런 생활상을 전함.
9信	翁學涵	金永爵	1861.4.13	-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다 주변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가까스로 감형 받게 되었음. -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임.
10信	張丙炎	金永爵	1864, 늦봄	- 孟春에 李祖永을 통해 보낸 저서 1함과 家親의 서찰을 받았는지 물음. - 조만간 김영작이 다시 연행하여 재회하길 바람. - 海秋·稼軒·魯川 등의 근황을 전함. - 潤臣이 김영작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摹刻本 《澄清堂帖》을 보냄.
11信	張丙炎	金永爵	1864.8.10	- 4월 중순 갑작스레 부친상을 당한 자신의 슬픈 심정을 전함. - 선친의 《味眞閣詩》가 전란으로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귀향 후 선친의 만년 유고를 덧붙여 다시 간행한 후 보내주겠음.
12信	趙廷璜	金弘集	1892.9.8	- 조선사신이 찾아와 김영작의 詩集과 墓表를 전해줌. - 김영작의 인품과 업적에 대한 칭송. - 1859년 김영작이 연행했을 때 자신의 부친 趙光과 주고받았던 시들을 김영작의 문집에서 발견하게 됨에, 이 시들을 조광의 문집에 보충해 넣고자 함. ¹⁹⁾ - 귀국하는 사신 편에 조광의 연보(《趙文恪公自訂年譜》二卷)와 가문 사람의 저작 《居易軒遺稿》, 《向湖村舍詩集》을 보냄. - 부친 조광과 김영작 간에 주고받은 창화시에 대한 소감을 적은 七言絕句 4首. ²⁰⁾

13信	李文源	金永爵	18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작이 보낸 문장에 대한 찬사. - 보내 준 부채 두 자루에 대한 감사 인사. - 김영작이 부탁한 편지와 書畫帖, 附子를 다음 기회에 보내주겠다고 양해를 구함.
14信	李文源	金永爵	18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친의 行狀 한 권을 申錫愚를 통해 보낸 상황을 전함.
15信	李文源	金永爵	18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여름에 보내준 선친의 誄文에 대한 감사. - 선친의 行狀이 조만간 인쇄되어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고자 함. - 申錫愚가 선친의 상에 직접 찾아와 조문한 일에 대한 고마움. - 형제들의 이름과 근황을 소개하고, 자신의 근황을 전함. - 숙부와 친척 陳少言의 소식을 전함.

4. 척독 내용상의 특징적 면모

4.1 “千里一心”의 交情 표현

이 《中朝學士書翰錄》에 수록된 편지들은 모두 슬한 난관을 딛고 긴 시간 간격을 두어 왕래되었던 관계로, 그 일자일구마다 벅을 향한 시름겨운 그리움과 회한이 곡진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정공수는 제1신의 후미에서 “앞으로도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천리 떨어진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길 바랄뿐입니다.”²¹⁾라고 적어, 행여 이번 편지가 이역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되지

19) 《邵亭詩稿》卷2에는 金永爵의 五言律詩 <奉和趙蓉舫尙書席上見惠之作次韻> 2首와 趙光이 지은 五言律詩 <趙蓉舫尙書原作> 2首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20) “情眞詞雅意纏綿，中有先人贈答篇。無福從容侍文譚，回頭剛是我生年。” “繞壁彷徨寄慨深，玉河風雪發悲吟。卽今時務尤難說，察落荊高劍筑心。” “手譚心畫重裝池，茶熟香溫一展之。中外因緣文字契，闕應留與後人知。” “瀧阡一表視歐陽，卿相門風世澤長。可有閑情詠花月，艱難時局要平章。” (以上的 시들은 별지에 작성됨)

않을까 근심하며 부디 두 사람이 한마음(“千里一心”)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제2신에서도 “그 후 정월 보름 전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음에, 미처 뜯어보기도 전에 미칠 듯이 기뻐합니다. 거듭 읽어 보니 절절한 심정이 편지 위로 넘쳐 났습니다. 천리 밖에 떨어져 있건만,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처럼 한결 같았습니다. 매번 대형께서 ‘망망한 사해에 나를 알아주는 이는 적구나!’라고 하신 구절을 읊조리며, 우리 두 사람이 어찌하여 잠시 함께 만났다가 긴 이별을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하고 한탄을 합니다.”²²⁾라고 적어, 지난날의 교류에 대한 추억과 회감을 전하며, 또한 짧은 만남 중에知己로서 사귀다가 이제는 기나긴 이별(“聚少而離多”)을 해야 하는 처지를 탄식했다.

옹학함은 제9신에서 “헤어져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는 터라, 길 떠나기에 앞서 이 편지글을 적어 두터운 우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합니다.”²³⁾라고 적어, 짧은 엇갈림과 헤어짐을 숙연하고 애뜻한 정으로써 표현하였다.

이처럼 《中朝學士書翰錄》의 편지글은 文言 척독의 입에 발린 修辭나 형식적인 套語만은 아니다. 양국의 문인들이 하필 북경성에서 交情할 수 있었던 것도 기이한 인연이겠으나, 이별 뒤에 가슴 깊이 용솟음치는 그리움의 하소연도 참으로 구슬프다고 하겠다.

4.2 정치 난국의 묘사

《中朝學士書翰錄》의 서신은 청나라가 太平天國의 난과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정세에 처해 있던 1860년에서 1864년까지 작성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지에는 혼란하고 위급한 戰亂 상황을 겪고 있는 발신인 자신과 가족, 일전에 교류가 있었던 여러 지인들의 근황과 생사여부 등의 내용

21) “嗣後能通信與否，竟不可知，千里一心，惟鑒念而已。”

22) “上元前始拜奉寄書，未及開緘，狂喜欲脫，再三批誦，垂念眷眷之情溢於楮表，千里之隔，一心相同，有如此矣！每誦吾兄‘四海茫茫知已少’之句，竊歎我兩人何聚少而離多耶！”

23) “暮雲春樹，良覲無由，倚裝書此，識謝高誼。”

들이 큰 편폭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1신에서는 “내가 부처달라고 맡긴 두 통의 편지는 가현 대형이 청강 땅으로 갖고 갔는데, 금년 정월과 2월 사이에 만나본 후로 청강 일대가 태평천국의 무리에게 함락되는 바람에 또 어디로 휩쓸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²⁴⁾라고 적어, 오곤전이라는 친구가 전란 중에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음을 걱정하였다. 또 같은 편지에서 “일전에는 鶴橋 대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책과 부채, 시를 함께 보냈었는데, 청강 땅에서부터 길이 막혀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다더니 지금까지도 답신이 없습니다. 항주는 함락된 후 바로 수복되었지만, 저희 집안에서만 희생된 사람이 셋이나 나왔습니다. 힐형 대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하여 집안에 큰 변고는 없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통 소식이 없습니다. 요즘은 장차 고향 땅에 밀어닥칠 변란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근심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제가 비록 관직에 몸담고 있지도 않으면서 한결음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일단 나라 밖으로 나간다면 발 디딜 곳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제 자식들을 위해 윤신 대형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린 자식들과 손자들을 바라보자니 눈물을 흐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답니까? 어찌서 몇 년 뒤에 태어나지 않았답니까? 제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²⁵⁾라고 적어, 전란의 화가 이미 북경성 근처에까지 미쳐 자식들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급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정공수는 제2신에서 “저는 해가 또 바뀔에 걱정스런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나라 안은 쇠퇴하고 조정에서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라고 적었고, 옹학함은 제8신과 제9신에서 각각 “저는 공무상의 곤액을 당한 후로 그 죄에 대한 벌금을 치르고 낙향하게 되었다가, 세 달 만에 태평천국의 난적들이 요강 땅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

24) “所委交二信，稼軒回清江，今春正二月之交，清江失守，不知其遷流何所矣。”

25) “前寄鶴橋書扇詩韻均寄去，自清江道梗，音信艱滯，至今無復書。杭州失守，雖即收復，而弟家殉難三人，吳楨衡聞奉母而逃，全家無恙，然今年並無來信，此數日來又不暇慮及桑梓之變將有眉睫之觀，弟雖無官守，而跣步不可離，以一出國門，毫無插脚處也，日夕爲范文子求作葉潤臣不可得，每顧小兒女小孫爲之泫然出涕，此輩何辜，何不遲數年出世耶！弟心情如此，”

다.”²⁶⁾, “지금 천하는 전란으로 온통 소란스럽고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건만, 높은 요직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은 그저 아침만 일삼을 뿐 당면한 형국을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²⁷⁾라고 적어, 이미 청나라의 국운이 크게 기울어 기강이 무너진 틈을 타 무능한 상하 관리들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4.3 물품과 서적교류 상황 수록

양국 문사들은 ‘文人之交’의 교류 수단으로써 시문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종류의 물품들을 동봉해 선물하여 友誼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의 문물이 청나라에 전해지고, 청나라의 문물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문물교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제1신에서는 “정월달에 편지글과 더불어 명주, 벼루, 차, 붓 등의 네 가지 선물 및 수시 네 폭을 조 씨를 통해 모두 갖다드리게 했습니다.”²⁸⁾라고 적고 있고, 또 금번에는 “상아로 만든 자 하나와 떡 네 개, 양전 백스무 폭, 시전한 묶음을 보냅니다.”²⁹⁾라고 하였다. 제2신에서는 “좋은 종이, 빛과 부채도 함께 보내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천의 가정주(嘉定綱) 한 단, 운남의 광연(廣硯) 한 개, 제 고향 항주의 용정차(龍井茶) 두 병과 호필(湖筆) 열 자루를 보낸다.”³⁰⁾라고 하였다. 제13신에서는 “말씀하신 부자(附子)는 천중(川中)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상품으로 치는데, 지금은 운반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찮으시다면 나중에 구해 보내겠습니다.”³¹⁾라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김영작은 조선에서 구하기 힘든 약재를 구하고자 부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26) “涵自遭厄後，贖緩歸田，甫三月而賊陷姚江，其間險阻艱難，備嘗之矣。”

27) “今天下干戈搶攘，生民塗炭，居顯要者但以逢迎爲事，不顧大局。”

28) “正月間寄函並綱硯茶筆四事，與壽詩四幅，囑來併趙姓齋呈。(후략)”

29) “籍托奉牙尺一事，墨四匣，洋箋百廿幅，詩牋一匣，祈督收。”

30) “住紙梳扇，一并拜嘉，感謝無似。寄去四川嘉定綱一端，廣硯一方，吾杭龍井茶兩瓶，湖筆十管。”

31) “承示附子以求之川中者爲上品，現今路途多梗，容俟覓得時再爲寄上。”

보인다.

일부 편지글에는 당시 양국 문사들의 私的인 서적교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제2신에서는 “보내주신 물건들 가운데 위소(韋昭)가 주석을 달아놓은 《국어》는 교감과 인쇄 상태가 정밀하고 뛰어난 것이 송나라 판본을 복각한 듯한데, 대단히 진귀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³²⁾ 라고 적어, 조선에서 간행한 仿宋本 《국어》에 대한 간략한 評語를 적어 보냈다. 제10신에서는 “동봉한 모각본 《징청당첩》은 윤신(潤臣) 대형이 드리는 것입니다.”³³⁾ 라고 하였다.

또한 김영작의 아들 金弘集이 수신자로 되어 있는 제12신은 金永爵과 친밀히 교유했던 趙光의 아들 趙廷璜이 보내온 것인데, 조정황은 이 편지 중간에서 “이번에 사신들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 선친 문각공의 《연보》, 저의 문중 사람이 쓴 《거이현유고》와 《상호촌사시집》을 함께 보내니 살펴보고 질정해 주시길 바랍니다.”³⁴⁾ 라고 적었다. 그리고 후미에서는 “조선의 의정대신인 도원 김영작 대형께서 그 선친이신 시랑공의 묘표와 《소정시집》을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기미년에 제 선친 문각공과 주고받은 시가 있기에, 뒤에 느낀 바를 적고 의정 대형께 서신으로 보내어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³⁵⁾ 라고 적어, 부친들의 시문집을 서로 교환하며 先代의 돈독한 友誼가 후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中朝學士書翰錄》 중에는 유달리 많은 청조 문사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특히 제1신에는 葉名禮, 吳昆田, 楊傳第, 李伯衡, 馮志沂 등 중국 각지의 관료 및 은일 학자 이십여 명의 이름과 별호가 포함되어 있어 김영작이 폭넓은 교류 관계를 맺어왔음을 엿볼 수 있다.³⁶⁾

32) “承覽韋注《國語》，校刊精粹，似影宋本，極可珍貴。”

33) “附呈摹刻《澄清堂帖》，當是潤臣所惠。”

34) “茲於貴國使之歸也，附上先文恪公《年譜》，並敝族人《居易軒遺稿》·《向湖村舍詩集》，仰祈鑒正，時惠教言焉。”

35) “朝鮮金道園議政寄其先侍郎墓表並《邵亭詩集》，中有己未歲與先父文恪贈答之篇，感書於後，郵乞議政教之。”

36) “所委交二信，稼軒回清江，今春正二月之交，清江失守，不知其遷流何所矣。張午橋揚州人也，已入詞館。回籍惟楊汀鷺，南宮應試罷罷，入東河帥黃莘農幕府，稼軒之信，將來郵致汀鷺，陳

5. 맺음말

이상에서 검토한 《中朝學士書翰錄》은 19세기 후반 淸나라 문인들이 朝鮮 後期の 인물인 邵亭 金永爵과 그의 아들인 道園 金弘集에게 보내온 친필 書翰들을 모아놓은 서한집이며, 또한 조선 후기 燕行 交流의 양상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사료이기도 하다.

필자는 고려대도서관 한적실에 소장되어 있는 척독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中朝學士書翰錄》의 影印 全文자료를 입수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實查를 통해 주요 서지사항을 재조사하고, 《中朝學士書翰錄》에 수록된 書箋과 詩箋 15편의 탈초 원문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내용에 설명을 덧붙여 보았다. 前述한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朝學士書翰錄》는 고려대학교도서관 한적실에만 소장되어 있는 孤本으로서 청나라 말기에 유통된 箋紙의 형태적 특징과 조선 김영작과 청조 문인들과의 교류 상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실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서한집은 發信者 별로 청나라 程棡壽의 書箋 2편, 陳翰의 詩箋 2편, 李銜의 詩箋 2편과 書箋 1편, 翁學涵의 書箋 2편, 張丙炎의 書箋 2편, 趙廷璜의

少言聞已出京, 夢詔之長子名文源, 號心傳, 前任戶部郎中, 聞此時已納賢爲戶部觀察矣. 其次三兩子名字未知, 年歲官階亦茫然, 渠寓去弟居不遠, 夢詔之父爲弟先公同年【嘉慶辛酉科】而弟又與夢詔之兩弟同年, 是以夢詔壽歸, 弟在彼助祭, 竟日亦其親戚招致, 之若夢詔之子, 茫乎不知也. 少言信亦只好留俟伊來再交, 蕙舫無辜被逮繫獄, 四五月矣, 現在此間事大率如此, 不必爲蕙舫惜, 剝喪元氣, 有百倍於蕙舫者, 蒼翁尚書亦局局如轅下駒, 驚悸憂患有不得不時時乞假者. 所以此次惠書無從與之傳觀耳. 前寄鶴僑書扇詩韻均寄去, 自清江道梗, 音信艱滯, 至今無復書. 杭州失守, 雖卽收復, 而弟家殉難三人, 吳擲衛聞奉母而逃, 全家無恙, 然今年並無來信, 此數日來又不暇慮及桑梓之變將有眉睫之觀, 弟雖無官守, 而跬步不可離, 以一出國門, 毫無插脚處也. 日夕爲范文子求作葉潤臣不可得, 每顧小兒女小孫爲之泫然出涕, 此輩何辜, 何不遲數年出世耶! 弟心情如此, 問之枕泉可以盡知. 潤臣處筆談卷子弟子錄一分寄上, 原跋語不能記憶矣. 前數日尙與任荷漪李枕泉兩公唱和. 此數日來情狀甚惡, 使者明日行亦大幸事, 籍托奉牙尺一事, 墨四匣, 洋箋百廿幅, 詩箋一匣, 祈管收.”(제1신의 일부)

書箋 1편, 李文源의 書箋 3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受信者 별로 조선 金永爵이 받은 서신 14편, 金弘集이 받은 서신 1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필자는 본 서한집을 탈초 교열하는 과정에서 第25葉 뒤쪽의 “道園樞密大人執事”로 시작하는 제12신 본문내용, 그리고 이 서한의 別紙에 따로 적은 七言絶句 4首 중에 錯簡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전후 문맥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본 서한집 안의 매 편지글에는 청나라 문인들의 조선 김영작을 향한 시름겨운 그리움과 회한이 곡진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 김영작과 청나라 문인들 간에 깊은 교류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발신자 자신과 가족, 여러 지인들의 위급한 근황과 염려의 내용을 통해 太平天國의 난과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점차 국운을 다하던 1860년경 청나라의 정세를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조선 조정과 대신들에게도 상당한 경각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에도 여러 편지글에 서신 왕래와 더불어 조선과 청나라 양국의 서적들이 함께 전해졌음을 알 수 있는 서적명칭과 간략한 評語들이 언급되어 있어, 조선 후기 서적교류의 양상을 엿볼 수 있었다.

끝으로 필자는 《中朝學士書翰錄》에 나타난 문자기록의 정확한 판독을 바탕으로, 후대에 간행된 관련 문헌에 대해 보완하고 재검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록〕 <中朝學士書翰錄>에 언급된 교류 人士

편차	성명	자호	생졸년
1信	李伯衡	夢韶	? -1859
	葉名禮	潤臣	1811-1859
	吳昆田 ³⁷⁾	稼軒	1808-1882
	張丙炎	午橋	? -1905
	楊傳第 ³⁸⁾	汀鷺	? -1859
	黃贊湯	莘農	1805-1869
	陳翰	少言	-
	李文源	心傳	-
	翁學涵	蕙舫	-
	趙光 ³⁹⁾	蓉舫	1797-1865
	吳受藻 ⁴⁰⁾	擷蘅	-
(朝鮮)任百經 ⁴¹⁾	荷漪	1778-1864	
2信	張祥河 ⁴²⁾	詩舫	? -1862
	李文源	心傳	-
8信	朱蘭 ⁴³⁾	耐菴	1800-1873
	寶臺 ⁴⁴⁾	佩蘅	1807-1891
9信	-	曉山 ⁴⁵⁾	-
10信	(朝鮮)李祖永	小澗	-
	許宗衡 ⁴⁶⁾	海秋	1811-1869
	馮志沂 ⁴⁷⁾	魯川	1814-1867
	葉名禮 ⁴⁸⁾	潤臣	1811-1859
11信	(朝鮮)李祖永	小澗	-
	(朝鮮)李尙迪 ⁴⁹⁾	藕船	1804-1865
	張安保 ⁵⁰⁾	石樵	1795-1864
12信	趙光	文恪	1797-1865
15信	(朝鮮)申錫愚 ⁵¹⁾	琴泉	1805-1865
	-	相圃 ⁵²⁾	-
	李文濤 ⁵³⁾	韻松	-
	李文溥 ⁵⁴⁾	心泉	-
	李世楨 ⁵⁵⁾	-	-

- 37) 《皇清書史》 卷12에는 “吳昆田, 撰《高伯平先生行狀》云, 子行信, 工篆法。【《漱六山房集》】”이라고 적고 있고, 《皇清書史》 卷18에는 “吳昆田, 《師友記》云, 嗜金石篆刻, 尤喜撫金石殘字畫印章, 嘗集《毛詩》句成印, 列於屏幅, 日下祝壽者爭得之以爲榮, 一時爲之紙貴。”라고 적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漱六山房稿》가 있다.
- 38) 楊傳第는 거인 출신으로 河東河道總督 黃贊湯의 막료가 되었는데, 모친이 捻軍으로 저항하다 피살되자 뒤따라 자살하였다. 유명한 서화가 包世臣의 사위로 문장이 뛰어났다. 저술로는 《汀鷺文抄》가 있다.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19집, 2008, 1003면 참조.)
- 39) 《皇清書史》 卷24에는 “書法晉唐, 時與祁篤藻·陳孚恩·趙光, 稱四書家。【《書畫過日考》】”라고 적고 있고, 《皇清書史》 卷25에는 “趙光, 字仲明, 號蓉舫, 晚號退菴, 昆明人. 嘉慶二十五年, 進士, 官刑部尚書. 諡文恪, 書法魯公。【《書畫過日考》】”이라고 적고 있다.
- 40) 《皇清書史》 卷6에는 “吳受藻, 字堯士, 號蘊衡, 仁和人. 道光二十六年, 優貢, 考取八旗官學教習. 在籍死粵逆之難. 工書, 入唐人之室。【《浙江忠義錄》】”이라고 적고 있다.
- 41) 任百經(1800-1864)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豐川이고, 字는 文卿, 號는 荷漪이다. 1827년(순조 27년) 진사가 되어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1832년 흥문과에 발탁되었다. 1847년 尹定鉉·洪祐順 등과 함께 宰臣의 반열에 올랐고, 1856년(철종 7년) 8월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가, 그해 11월 冬至副使로 북경에 다녀왔다. 이후 형조판서·비변사당상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1864년(고종 1년)에는 우의정에까지 올랐으나 그 해에 죽었다. 그의 저서로는 《紫閣漫稿》가 전한다. 시호는 文貞이다.
- 42) 그의 저서로는 《關隴輿中偶憶編》이 전한다.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19집, 2008, 1012면 참조.)
- 43) 《皇清書史》 卷4에는 “朱蘭, 字久香, 號耐菴, 餘姚人. 道光九年, 第三人及第, 官內閣學士, 以文學受知宣廟, 嘗偕許文恪·戴文節入內, 上出扇命書之。【《家傳》】”라고 적고 있다.
- 44) 《皇清書史》 卷18에는 “唐傳猷, 字晉徽, 鄒縣人. 咸豐十一年, 拔貢, 官吏部員外郎. 家本寒素, 初官京師, 備書自給, 名震都下. 醇親王大學士寶鋈, 屢索分篆。【《山東通志》】”이라고 적어, 寶鋈이 醇親王大學士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5) 曉山은 王씨이고, 이름은 未詳이다.
- 46) 許宗衡은 진사 급제 후 起居注主事를 지냈다. 시와 古文에 능하였다. 저술로 《玉井山館文略》 등이 있다.
- 47) 《皇清書史》 卷1에는 “馮志沂, 述仲, 一字魯川, 代州人. 道光十六年, 進士, 官皖南道. 善書。【吳昆田《漱六山房稿》】”라고 적고 있다.
- 48) 葉名澧은 內閣中書, 侍督 등을 지냈으며, 많은 산수시를 남긴 저명 시인이다. 그의 부친 葉志誥는 翁方綱의 문인이자 사위로서, 추사 김정희와도 교분이 두터웠다. 섬지선의 장남 葉名琛은 현달하여 廣東巡撫를 거쳐 兩廣總督에 올랐으며, 아우 섬명풍과 함께 詩文으로 명성을 떨쳤다. 1858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廣州 공격 때 체포되어 인도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섬명풍도 浙江候補道로 임명되어 임지로 가던 도중 형의 죽음을 전해 듣고 杭州에서 병사했다고 한다. 저술로 《敦夙好齋詩集》, 《橋書雜記》 등이 있다.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19집, 2008, 1002면 참조.)
- 49) 李尙迪(1804-1865)은 朝鮮 후기의 문인이자 역관이다. 본관은 牛峰이고, 字는 惠吉이며 號는 藕船이다. 철종 13년(1862)에 지중추부사직을 제수 받았고, 1863년에 온양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金正喜의 문인으로, 12차례에 걸쳐 사행하여 청나라에 다니오는 과정에서 그의 뛰어난 문장과 학식으로 당시 청나라 문인들과 널리 교류하였다. 《국조보감》의 간행에 참여한 바 있으며, 《通文館志》, 《同文彙考》, 《同文考略》 등을 속간하기도 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恩誦堂集》이 전한다.

〈 參考文獻 〉

- 《中朝學士書翰錄》，고려대학교도서관 한직실 소장본.
 金永爵, 《邵亭文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金永爵, 《邵亭詩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金弘集, 《金弘集遺稿》，高麗大學校出版部, 1976.
 董文渙, 《韓客詩存》，書日文獻出版社, 1996.
 (清)李放, 《皇清書史》. (臺北) 新文豐出版社, 民78.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文獻研究》(集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梁穎, 《說箋》，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2.
 楊雨蕾, 《燕行與中朝文化關係》，上海辭書出版社, 2011.
 俞劍華, 《中國美術家人名辭典》，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1.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19집, 2008.
 김명호, <董文渙의 “海客詩存”과 한중 문학 교류>, 《한문학연구》 26집, 2000.
 李維基, <典雅清俊話素箋>, 《中國拍賣》 5월호, 2003.
 이춘희, <藕船 李尙迪과 晚淸 文人의 文學交流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王元周, <朝鮮開港前中朝宗藩體制的變化>, 《中山大學學報》 51집, 2011.
 천금매,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鄒振環, <清代書札文獻的分類與史料價值>, 《史林》 5期, 2006.

50) 《皇清書史》卷14에는 “張安保, 字懷之, 號石樵, 一號叔雅, 晚號潛翁. 儀徵貢生, 工隸書, 精篆刻.【《漱六山房集》】”이라고 적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味眞閣詩集》이 전한다.

51) 申錫愚(1805-1865)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산이고, 字는 聖如, 號는 海藏이다. 1828년(순조 28년) 진사가 되었고, 1834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假注書·예문관검열·사간원정언을 거쳐 1838년(헌종 4년) 龍岡縣令을 지냈으며, 그 후 부교리·병조참판·우승지·양주목사·대사성·이조참의·승지·이조참판 등을 거쳐 1855년(철종 6년)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다. 1857년 대사헌이 되었고, 이듬해 한성부판윤을 거쳐 1859년 형조판서와 예조판서에 올랐다. 1860년 冬至正使로 청나라를 다녀온 바 있다. 시호는 文貞이다.

52) 李伯衡의 아우이다.

53) 李伯衡의 次子이다.

54) 李伯衡의 三子이다.

55) 李伯衡의 四子이다.

< 中文提要 >

高麗大學校圖書館漢籍室所藏《中朝學士書翰錄》是, 蒐集清朝文士程恭壽等六人在19世紀末寄給朝鮮金永爵、金弘集父子的十五篇親筆書信而裝幀的一部摺帖, 也是一種助於我們了解十九世紀韓·中兩國文人尺牘交流情況的一次文獻資料。

《中朝學士書翰錄》中所載的尺牘, 由于清朝文士程恭壽等六人親筆撰寫, 不僅保存了原來的內容與形式, 而且可以欣賞了圖署和信箋的品味和格調。本稿以文獻學的研究方法針對該摺帖的文獻特徵進行實查, 發現了在裝幀上的兩處錯誤而糾正, 同時對原文內容作了初步的分析, 考察了各書信的寫作時期和主要內容, 以及書信交流上的特徵。

總之, 該摺帖除了留存著太平天國之難以後的清朝政局及其相應細節的歷史資料, 還為今人提供研究兩國文人交流情況的重要歷史資料。

關鍵詞: 中朝學士書翰錄、金永爵、金弘集、清朝文人、尺牘交流、燕行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4. 14.	2013. 5. 8.	2013. 5. 14.	2013. 5. 24.	2013. 5. 31.